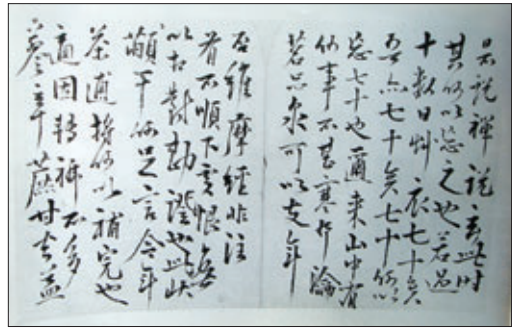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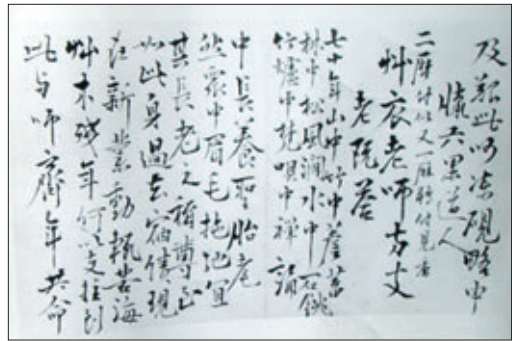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해를 같이하는 묘리 즐겁지 않은가

추사의 말년 편지는 담담한 소회로 가득하다. 자신의 나이가 이미 칠십이 되었다고 하니 이 편지는 1854년 12월 말경에 보낸 듯하다. 칠십이 된 자신의 삶을 회고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의 노사방장에게 노안이 답합니다.

칠십년을 사는 동안 산중(山中)과 대나무 사이, 차나무 숲 사이, 솔바람 산골 물 사이, 차를 끓이는 동안에, 범패 소리 사이, 수행 중에 성태(聖胎)를 잘 길러 늙었지만 그러나 무리 중에 눈썹이 땅에 깔리니 장로라 존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는 이처럼 칠십이 되었는데도 과거의 묵은 빛으로, 현재 새로운 일에도 움직이면 문득 고해가 됩니다. 초목 같은 나머지 삶을 무엇으로 지탱하겠습니까. 나와 그대가 함께 해를 같이하고 명을 함께함에 이르면 날로 참선에 기뻐하고 현묘한 묘리에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그 어찌 잊겠습니까. 불과 열흘이 지나면 초의도 칠십이고, 나도 칠십이 됩니다. 칠십이 된 내가 어찌 칠십이 된 그대를 잊겠습니까. 근래에 산중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무 출지는 않습니까. 차를 끓이고 물을 감별하는 것은 (나이 든)살을 지탱할 만합니다. 아 닌가요. 유마경은 주가 아니면 순조롭게 읽어 내려가질 못하겠습니까. (그대와 함께)서로 헤아리고 증험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나는 사리에 밝지 못하니 어찌 족히 말 하리요. 올해 차포는 장차 어떻게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시겠습니까. 마침 다음에 보낼 인편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쓴 것을 먹지만 달게 느낄 뿐입니다. 지난 것도 더 보내시길... (艸衣老師 方丈 老阮答, 七十年山中 竹中 林松風澗水石茗爐中 梵唄中 禪誦中 長養聖胎 然衆中眉毛拖地地 宜其長老之稱尊 至如此身 過去宿債 現在新業 動輒苦海



추사가 칠십세를 앞두고 초의에게 보낸 편지

艸衣殘年 何以支柱 到此與師齊年共命 日不說禪說玄 此時其何以忘之也 若過十數日 艸衣七十矣 吾亦七十矣 七十何以忘七十也 邇來山中何事不甚寒耶 滄茗品泉 可以支年否 維摩經非注有不順下處 恨無以相對勘證也 此狀願干 何足言 今年茶連 將何以補完也 適因轉轉(=遞)不多少餐辛蔗甘去益

이 편지에서 자신의 벗 초의는 칠십년을 사는 동안 속진이 없는 세상인 산중에 살면서 자연과 차를 벗하여 수행했기에 신성한 몸을 잘 길렀다. 그래서 늙었지만 '눈썹이 땅에 깔리'는 선승의 품모를

갖추었으니 '장로라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초의와 동년배인 추사 자신은 칠십이 다 되도록 전생에 지은 묵은 빛도 청산하지 못한 채, 현재에도 '움직이면 문득 고해가 되는 어려움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 그의 삶을 지탱케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그대가 함께 해를 같이하고 명을 함께함'이다. 그렇게 하면 '날로 참선에 기뻐하고 현묘한 묘리에 즐겁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는 진정 추사의 속내였으리라. 불과 10일이 지나면 칠십이 된다니 이 편지는 대략 1854년 12월 20일 경에 쓴 것이다. 칠십의 나이란 공자도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 不踰矩)'라 하지 않았던가. 마음이 가는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세월을 살았던 추사의 소회는 무엇일까. 아마 진실한 소통의 의미를 나는 벗, 초의와 추사는 서로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가 보다. 그가 '칠십(이 된 내가)어찌 칠십이 된 그대를 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이를 나타낸다. 특히 거사선(居士禪)에 큰 관심을 보였던 추사였기에 그가 <<유마경>>을 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석의 실마리를 열어주는 주(注)가 없다면 읽을 수 없었던 그였기에 초의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조선 후기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가 <<유마경>>을 읽을 수 없어 서이겠는가. 이는 벗을 그리워하는 정회를 이리 표현한 것이리라. 한편 추사의 말년, 초의가 보낸 차는 그를 즐겁게 동반자였다. 아마도 추사는 초의가 보낸 차에서 초의를 만나고, 차의 향기에서 벗의 지극한 마음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학문·수행·전법 모두 '정토가꾸기'의 한 길

보광 스님 (동국대 교수·성남 정토사 주지)

2000년 6월 6일, 서울 청계산 자락에서는 불교를 새롭게 하자는 뜻 깊은 운동이 일어났다. 바로 만일열불결사다. 예부터 국난기나 교단의 부패가 심할 때 결성돼 새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 열불결사, 이날 모인 1000여 출세가 대중들은 2027년 10월 22일까지 27년5개월 동안의 긴 수행을 시작했다.

만일열불결사를 이끌고 있는 보광 스님을 만난 2월 11일은 결사 5000일을 맞는 날이었다. 한국불교학계 최초의 정토학 박사인 보광 스님은 1982년 성남 정토사를 창건해 포교와 재가자 교육에 매진해왔다. 만일열불결사를 비롯해 한글대장경 전산화, 정토학회 창립,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등 손에 꼽기 어려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남산의 한 자락에 자리한 동국대 스님의 연구실에서는 논문을 윤독하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연구원 문을 두드리니 책들로 가득한 소박한 방안에서 스님이 편안한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 불교 혼탁할 때 새 불교운동으로 일어나

보광 스님은 종교의 신앙에는 구심점이 뚜렷해야 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행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앙결사는 바로 자신이 일생동안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대발원이며 불교가 혼탁했을 때 전개된 새 불교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신앙결사인 정혜결사는 참선을 주로 해 민초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원묘 요세 스님의 열불결사는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불교 내에는 참선 외에도 열불과 같은 여러 근거에 맞는 수행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근래에 이런 수행법들이 맥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비구·대처 간 정화에서 참선 위주로 나가며 열불을 비롯해 여러 불교의식의 전승이 단절됐어요. 2000년도부터 '한국 불교의 신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열불결사 운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토사의 열불만일결사의 핵심은 스님의 지론처럼 신생활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중국 여산 스님의 <반주삼매경>과 원효 스님의 <아미타경소>에 사상적 근원을 둔 열불만일결사는 스매일 108배를 하자, 스매일 1000번 이상 칭명열불하자. 스매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처님 전에 100원 이상 보시하자는 지침으로 진행된다.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는 철야정진이, 1년에 한 번씩은 계를 다시 받으며 참회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불교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신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행만을 강조했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약속인 신심과 발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열불을 많이 했어요. 상근기를 위한 참선수행법이 있다면 나머지 하근기 대중을 위한 열불수행법을 보급해야 합니다."

스님은 "일반의 경우에는 입제종이나 조동종의 선불교도 있지만 정토·법화종 같은 종파들이 서민들의 신앙적 갈증을 다 해결해 주지 개종할 필요가 없어 기독교 비율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타력 열불+자력 선=불퇴전의 열불선

스님은 한국불교 저변에 자리한 타력신앙에 대한 낮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보통 타력이라면 무조건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불교의 연기법 자체가 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숨 쉬고 하루 생명을 유지하는데 타력이 아니면 단 5분도 못살아가요. 타력이기에 연기인 겁니다. 저는 불교야말로 적극적인 타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유일신적 타력이 아닌 연기론적 타력이라는 거지요."

스님은 "열불수행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열불, 그 경계를 관하는 관상열불, 그 다음에 열불선으로 들어가갈 수 있다"며 "열불하는 이 주인이 누구냐는 의심을 화두로 삼을 수도 있으니 열불과 참선이 둘이 아

니다"고 강조했다. "열불이라는 타력과 선의 자력이 합쳐지는 것이 열불선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지요. 수행을 할 때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금생에는 부처님을 확인하고 내세에는 왕생극락하는 것이 열불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수행해 살아서 부처님 못 보면 죽을 때라도 진전해야지요."

#### 어려서부터 정토사상과 인연 깊어

이러한 정토사상과 스님과의 인연은 어려서부터 이어졌다. 스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모친의 병환으로 인근 사찰을 찾은 보광 스님에게 당시 사찰 주지 스님은 "너희 어머니가 회복하려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밤잠도 자지 말고 다른 생각도 말며, 오직 관세음보살만 찾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님은 어린 마음에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를 살려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당에서 하룻밤, 이를 밤을 새우면서 일심으로 불렀을 뿐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7일이 지나 회향일이 되었습니까. 그 후 병명도 몰랐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겨울 법당에서 추웠다는 생각보다는 한 밤중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아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은 그 이후 불교학생회 활동을 할 때 스님이 돼 불교를 중흥시키자며 인사할 때도 '성불합시다' '불교중흥합시다' 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원

#### 열불만일결사는 새 불교 실행운동

2월 12일 5000일 회향...1759명 동참

1982년 정토사 창건, 사찰재정공개

일본서 정토 전공, 한국 정토학 이끌어

논문 150여편, 한국불교 정토사상 정리

대각사상연구원 설립, 정토학회 결성

불교는 유일신적 아닌 연기론적 타력신앙

인권위·호스피스·후진양성 등 활동 다양

"자비와 지혜의 조화...정토구현 나서자"

효 스님이 활동하신 경주 분황사에서 행사생활과 학업을 계속하다 이듬해 출가했는데 은사인 도문 스님이 분황사 약사전 현판인 보광전(普光殿) 이름을 따 보광이라 법명을 지어주셨다.

출가 이후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진학했다. 여기서 스님은 '정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3학년 때 <정토삼부경> 과제를 했는데 평소 열불기도를 해서인지 마음에 개념이 되었어요. 이후 일본에 정토학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스님이 준에이 교수자 지도를 받으며 정토를 깊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 교수로 정토사상을 신라시대부터 최근까지 총정리 했다. 일본에서 학위 논문으로 원효 스님의 정토사상을 비롯해 신라 정토사상을 연구했으며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 특히 서산사명 스님 제자들의 정토사상에 대한 논문을 펴냈다. 스님이 펴낸 논문은 150여편으로 책도 20권에 달한다.

스님은 "초의, 영당유일, 백용성 스님까지 하면 한국 정토사상을 총정리하는 셈"이라며 "향후 한국 정토사상을 총 망라한 책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현재 25번째 일본 도원 스님의 '정법안장'을 번역해 주석을 달고 있는데 20년을 더해 95권 전체를

## 컵범어담긴 도자기 에코컵

###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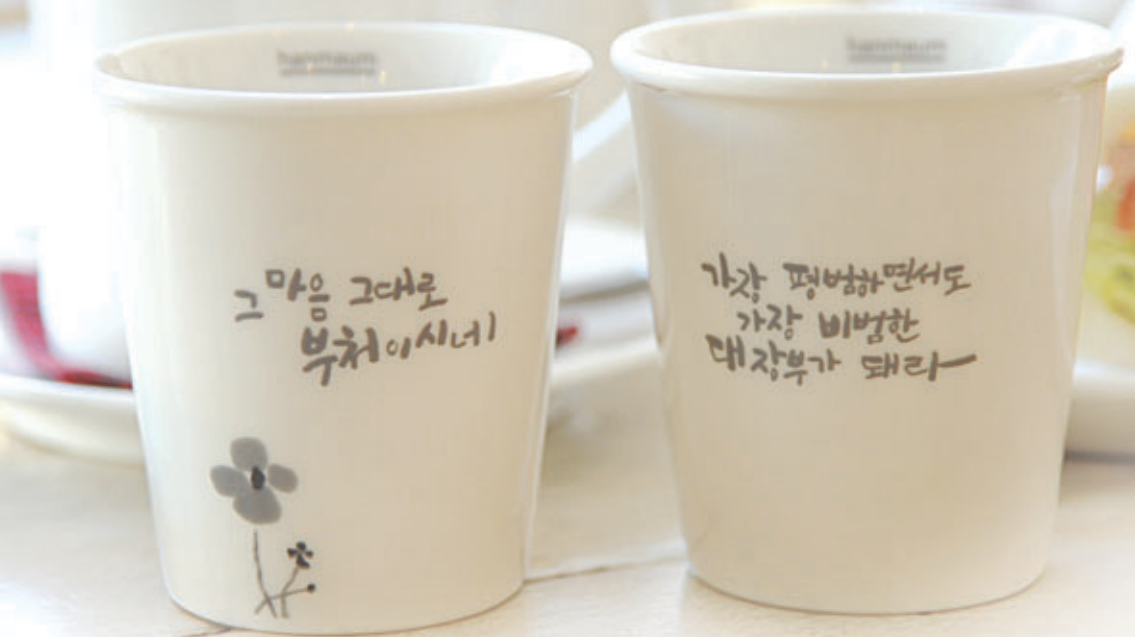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 안성맞춤!

종류	컵범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날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범어내용 <
1. 마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성남 정토사 열불만일회 법회의 한 장면. 열불만일회 법회는 함께 열불하며 정토를 발원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보광 스님은 ... 1951년 태어난 보광 스님은 경주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각원장, 100주년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원장 등의 소임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국제전자불전학회 회장, 한국정토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토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강의서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음성 스님의 전서 30종도 새로 번역하고 있다.

스님의 정토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자불전연구소와 대각사상연구원 등을 세운 것. 스님은 한국 불교전서 전산화에 완료를 하고 있다.

스님은 "요즘시대에 부처님 말씀을 전산화해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 이 이상 복 짓는 일이 없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성남 정토사는 불교정토 구현 터전

스님은 학문적 성과 외에도 주석사찰인 성남 정토사를 정토구현의 터전으로 만들고 있다. 정토사의 만일 염불법회에는 모두가 목탁과 악기를 치는 신명이 넘치는 법회가 진행된다.

"염불이 대중화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대중이 함께 하는데서 비롯됩니다. 목탁뿐만 아니라 북, 징 등을 치며 모두 함께 염불하는 순간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모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정토사도 사부대중의 평등구조에서 운영된다. 스님은 1982년 사찰 재정을 모두 공개해 신도회가 관리하도록 했다. 신도들의 신뢰 확보는 정토사가 초창기 100명 규모에서 7000명 규모로 도량을 키우는데 원동력이 됐다. 스님은 여기에 2차, 3차 염불결사 등의 진행을 위해 대각회에 사찰을 헌납하기도 했다. 정토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은 최근 700명 규모의 염불만일결사 회관을 짓기로 결의하는 등 중창불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관에서는 호스피스 교육을 비롯한 정토사상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호스피스·장례문화 운동 적극 전개

스님은 정토사상을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997년 동국대에 장례문화학과를 만들기도 한 스님은 호스피스 운동, 인권위원회



1982년 보광 스님이 창건한 성남 정토사 전경

회 위원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왜 정토에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지에 대해 "잘 죽자는 것은 잘 살자는 것"이라며 "염불 또한 생사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노령화 시대에 필요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정토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임종 수계를 다니며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돌아가실 때 80%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죽어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임종수계를 받은 사람은 숨이 끊어져도 얼굴이 편안해요. 극락에 간다는 임종염불은 인간이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마지막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가 이 운동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스님은 이어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했다. 스님은 "적어도 불교를 믿는다면 불보살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며 "그 확신이 없으니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부처님의 본원력이 아무리 커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안되요.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부처님의 본원력을 간절히 믿을 때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는 겁니다. 돈 한 푼 없었는데 경전을 전산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힘을 믿으니 이뤄진 겁니다."

스님은 그런 면에서 불교계가 불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가 내세관을 뚜렷이 제공해야 한다"며 "호스피스 문제, 내세 문제 등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사회에서 종교는 타력의 자비와 자력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펼치는데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토행자요 정토세상을 구현하는데 함께 정진해 나가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이 세운 전자불전연구소에서 전산화한 한국불교전서

전법일기

군인이 되는 과정과 출가의 과정

어느 날 신병교육대대 법회에서 병사들과 재미 있는 대화로 인해 한바탕 웃은 일이 있었다. 이날 유독 머리가 돌보이는 훈련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고 스님들처럼 완전히 삭발한 상태였다. 보통 훈련병들이 머리가 짧은 것은 당연하지만 워낙 삭발을 한 탓에 유독 튀어 보였다. 법회 후 간식 시간에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내가 머리에 대해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했다.

"법사님, 수계법회 때 이 친구는 법명을 '민모'로 지어 주셔야합니다."

"무슨 말이니?"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없지 않습니까? 털이 없으니 민모 아깝니까. 게다가 이름도 민모입니다."

"아 그렇구나. 본명도 민모구나. 하하하!"

이름도 '민모'이고, 또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법명도 우스게 소리로 '민모'로 해달라는 것이다. 군대에 들어오기 전 짧은 장정들은 나름 솟사자의 갈기 머리처럼 멋지게 하고 다닌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 전날 친구들과 함께 아쉬움을 달래며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또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다. 모두들 군대라는 곳으로 마치 출가라도 하듯 맨머리가 되면 시원섭섭함과 아쉬움 때문에 민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한다. 머리카락을 깎은 심정이라 오죽하랴!

오늘도 군대 입대하는 젊은 장정들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훈련소로 향한다.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첫 걸음으로 머리를 깎는다. 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뺨뺨 깎은 머리의 그 병사를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다.



그림·박구원

'깎인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적인 상태 변화만을 보여 주는 것일까? 부모 슬하를 떠나고, 친한 친구와도 이별을 하며, 집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발길을 내딛어야 하는 그들에게 머리를 깎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징표는 아닐까? 어쩌면 소년으로 살다가, 이제 청년으로 살기 위해, 소년의 힘이 아니라 청년의 힘으로 성장하기 위해, 치열한 통과의례를 치르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통과례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련이 아닌 자신의 소중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이러한 통과례는 진정한 자기 성숙을 위한 과정이 아닐까?'

군인이 되는 과정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인->장정->훈련병->이등병으로 되는 일련의 과

정 속에 젊은 청년의 진정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에 필요한 참다운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군인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시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부처님께서서는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도 시련이 있었다. 과정없이 한 순간에 깨달은 분이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고행을 몸소 체험하시고 나아가 그 고행마저 벗어나서 바른 수행을 통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발견하시었다. 이 체험은 사문 고타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정각을 이룬 부처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의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법사님!"

소위 고문관이라 불리는 문제 병사, 부적응 병사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보면 그들의 눈과 행동 속에서 새로 태어나게 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훈련병 시절은 약 40일 가량 된다. 짧게 머리를 깎은 40일간 진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행군도 하고, 땅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포복도 하며 각계 전투를 벌인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나는 머리를 깎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꾼다. 힘든 하루하루지만, 삶의 과정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와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러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중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위원회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